정답

1	②	2	②	3	①	4	②	5	①
6	②	7	③	8	③	9	④	10	②
11	③	12	③	13	④	14	④	15	④
16	④	17	①	18	①	19	②	20	③

문 1. [어문 규정/표준발음]
② 읽다: [일따](×) → [익따](○)

① 뱃속[배쏙/밷쏙] ③ 'ㄷ'을[디그슬] ④ 금융[금늉/그뮹]

문 2. [어문 규정/맞춤법, 외래어 표기법]
② 마늘쫑(×) → 마늘종(○) 표기는 '마늘종', 발음은 '[마늘쫑]'이다.

① 마니아(mania):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. 또는 그런 일.
③ 새침데기[새침떼기]: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.
④ 라이선스(license): 행정상의 허가나 면허.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.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.

문 3. [문법/어법]
① 사사하다: 「…에게(서) …을 사사하다」 스승으로 섬기다.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. 예 그는 김 선생에게 창을 사사했다.

② 정부 당국에게(×) → 정부 당국에(○)
③ (현실에) 복종하기도 한다.
④ 갈음하다: 「…을 …으로 갈음하다」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.
예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.

문 4. [표준 언어 예절]
직장에서의 지칭어, 호칭어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. ①, ②의 경우가 헷갈린다. '여사님'이란 호칭은 널리 쓰인다. 결혼한 여자를 높여 부르거나,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로, 주로 성명 아래 붙여 쓴다. 직장에서도 상사의 아내를 높여 '여사님'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.
그러나 '사부님'이란 이름은 '사부(師父)'의 의미일 때는 스승을 지칭하는 말이고, '사부(師夫)'의 의미일 때는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쓰인다. 직장 상사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는 부적절하다.

문 5. [어문 규정/한글 맞춤법]
① 기여하고저(×) → 기여하고자(○): '-고자'는 의도나 욕망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며, '-고저'는 '-고자'의 옛말이다. 따라서 '-고자'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

'-당', '-씩'은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.
④ 말씀드린 바와 같이: '바'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
문 6. [비문학/서술상 특징]
② '기존 주장에 대한 반박'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 없다.

'그림문자, 뜻문자, 소리문자'에 대한 정의와 예시가 나와 있으며,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근거를 들어 설득, 주장하고 있다.

문 7. [비문학/내용(정보) 파악]
필자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. ㉠은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이므로 필자의 주장과는 반대된다.

문 8. [문법/음운론/음운 규칙]
③ 꽃망울[꼳망울(음절 끝소리 규칙) → 꼰망울(비음화 현상)]

① 덮개[덥깨]: 음절 끝소리 규칙 / 된소리되기
② 문고리[문꼬리]: 사잇소리 현상
④ 광한루[광할루]: 유음화 현상

문 9. [비문학/내용 파악(정보의 일치)]
이 글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. ①, ②, ③은 지문에 있다.
④ 생각하는 사회는 보는 문화가 아니라 읽는 문화가 만든다.

문 10. [어휘/한자성어]
附和雷同(부화뇌동): 일정한 주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같이 행동함.

① 勞心焦思(노심초사):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.
③ 類類相從(유유상종): 비슷한 것끼리 서로 따름.
④ 面從腹背(면종복배):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며 마음속으로는 배신함.

문 11. [어휘/한자 표기]
감상(感想): 마음에 느끼어 일어나는 생각
감상(感賞): 예술 작품의 음미.

문 12. [어휘/고유어, 한자어]
재원(才媛): 재주가 있는 젊은 여자.

② 사달이 나다: 사고나 탈이 생기다.
④ 계발(啓發): 슬기나 재능, 사상 따위를 일깨워 발전시킴.

문 13. [어문 규정/한글 맞춤법]
맞히다: '맞다'의 사동사
① 화분을 비를 맞히다. ② 할머니를 소박을 맞히다.
③ 꼬마에게 주사를 맞히다. ④ 정답을 맞히다.

맞추다:
① 문짝을 문틀에 맞추다. ② 맞았나 틀렸나 답을 맞추다.(대조)
③ 마음을 맞추다. ④ 입을 맞추다.

ㄱ. 주사를 맞히기가(○) ㄴ. 답을 정확하게 맞히면(○)
ㄷ. 소박을 맞히면 ㄹ. 일정을 맞춰

문 14. [문법/어법/중의적 문장]
① (1) 남편들보다는 아이들을 (2) 남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
② (1) 사랑하는 조국 (2) 사랑하는 딸들
③ (1) 부분만 처리했다. (2)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.

문 15. [문학/고전문학/가사]
㉠: 화자와는 대조되는 인물이다.
㉡: 절망이 담겨 있다.
㉢: 화자의 슬픔을 촉발하는 구실을 한다.

문 16. [글쓰기/고쳐쓰기]
㉣ '삼가'의 기본형은 '삼가다'이므로, '삼가해 주시기'라는 표기는 잘못되었다.
→ 삼가 주기(○)

문 17. [문학/현대시]

해원: '깃발'이 지향하는 이상의 세계
'깃발'의 보조 관념: 아우성, 손수건, 순정(물결), 애수(백로), 마음

유치환 '깃발'
성격 : 상징적, 낭만적, 의지적, 허무적
특징
- 깃발을 여러 보조관념에 비유하였다.
- 흰색과 푸른색의 선명한 색채 대조가 나타나 있다.
- 도치와 영탄에 의한 고뇌와 슬픔을 강조하였다.

주제 : 이상향에 대한 영원한 향수와 그 슬픔

문 18. [문학/고전문학/고전소설]

〈심청전〉 심청이가 죽은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다. 비현실적 전개이며, 설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. 모녀에 대한 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.

문 19. [어휘/한자성어]

'버글거렸을 뭇사람들의 모습은커녕 인적마저 찾을 수 없다.'에서 '염량세태'를 느낄 수 있다.
염량세태(炎凉世態):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세상 모습처럼,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여 좇고,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.

① 시시비비(是是非非):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함.
③ 사면초가(四面楚歌):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.
④ 조삼모사(朝三暮四):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.

문 20. [문학/현대소설]

③ '일인, 해방, 조선' 등의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드러냈다.

① 전체가 대화 됨. 독백은 나와 있지 않다.
②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④ 한 생원이란 인물의 이기적인 비도덕성을 드러내고 있다.

채만식 '논 이야기'
이 작품은 1946년에 발표된 농촌 소설이다. 해방 직후 혼란기의 사회상을 냉소하는 듯한 태도로 묘사함으로써 독특한 풍자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.